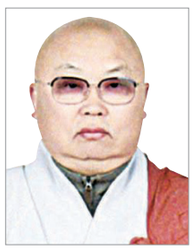
개시오입 법화길 나아가자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대한불교법화종 종도 여러분과 전국의 불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창종 80주년을 맞이하는 본종은 지나온 팔십 년의 공덕을 되새기며, 새로운 팔십 년을 향한 전법의 원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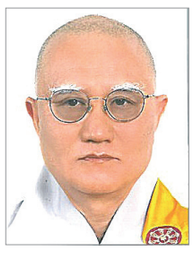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우리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창종 8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모두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입시다. 한 사람의 마음에 법화의 씨앗을 심고, 한 가정에 평안을 전하며, 한 사회에 화합의 등불을 밝히는 일이 곧 봉축입니다.

수행등불 민생 비추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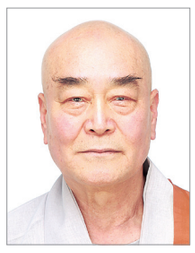
환희로운 부처님오신날, 세상을 환히 밝히는 오색 연등 아래 모든 국민과 사부대중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닿을 수 없는 먼 곳의 추상적인 이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현실 속의 뼈저린 고통을 덜어주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천의 길입니다.

저희 일붕선교종은 선과 교의 원융한 조화를 바탕으로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 전법, 그리고 이웃을 향한 자비와 나눔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껏 밝힌 봉축의 등불이 사찰을 넘어 어두운 세상 곳곳으로 널리 퍼져나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도 정견 화합을 이루다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불기 2570년 거룩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대자대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과 맹목적인 집착이 곧 모든 괴로움을 잉태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삼론의 위대한 정신은 굳게 닫힌 고정관념과 아집을 과감히 내려놓고, 치우침 없는 중도의 맑은 지혜로써 사물과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꿰뚫어 보는 데 있습니다.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갈라지고 대립하는 오늘날, 불자들은 다름을 배척하기보다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깊이 살펴야 합니다. 참된 화합의 길을 활짝 열어가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화엄법계 평화꽃 피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살아가는 존재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특히 화엄의 가르침은 우주 만유 가 서로 의지하고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는 연기(緣起)의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있고, 전체속에 하나가 있다는 화엄의 세계관은 오늘날 인류가 나아가야 할 평화와 공존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밝히는 연등은 지혜의 등불로서 공존과 평화의 빛으로 퍼져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대립은 화합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바뀌어 가기를 간절히 발원 합나다.

원융자비 한마음 되다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환희작약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어느 곳 하나 막힘없이 통하는 원융무애한 부처님의 자비가 일체 생명에게 두루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과 대립의 장벽을 넘어, 세상 모든 존재가 그물코처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연의 세계를 밝혀 주셨습니다.

원융의 진정한 가르침은 곧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니며, 한 사람의 눈물과 고통이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거룩한 과제임을 일깨워 줍니다. 물질적 편리함은 커졌으나 마음의 거리는 삭막하게 멀어진 현대 사회입니다. 하심하는 자세와 일상 속 따뜻한 실천합시다.

묵조선심 세상을 맑히다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지원 스님



거룩한 부처님오신날을 환희 봉축하며, 사부대중 모두의 내면에 고요한 지혜와 따뜻한 자비의 향기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밖을 향해 치달리는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스스로의 참모습을 맑게 비추어 보는 깨달음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희 조동의 고고한 선풍은 번잡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밝히는 묵조의 수행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참된 고요함이란 세상의 아픔을 차갑게 외면하는 도피적 침묵이 결코 아닙니다. 맑은 묵조의 지혜를 품고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갑시다.

여래 자비 새날 열다

대한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중생을 구제하러 오신 여래의 크나큰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뭇 생명의 뼈저린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그 괴로움의 뿌리를 낱낱이 밝혀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진리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참된 여래의 길은 세속과 동떨어진 높고 먼 산중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배려하며, 삶의 어려움 앞에서 서로의 손을 굳게 붙들어 주는 자비로운 마음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찰이 포근한 자비의 터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언광명 마음 깨우세

대한불교진언종

총무원장 혜천 스님



희망 가득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진언의 맑고 청정한 공덕과 부처님의 가피가 모든 불자와 국민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에서 짓는 바른 말과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행동이야말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깨달음의 초석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향한 거친 언어와 섣부르고 빠른 판단이 깊은 상처가 되는 삭막한 시대입니다. 불자 여러분, 일상에서 무심코 뱉는 한마디 말 속에도 따뜻한 자비를 담아 세상을 환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모든 생명에게 두루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 온누리 퍼지길

대한불교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



환희로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대자대비가 일체 생명에게 두루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보문의 참뜻은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차별 없이 널리 듣고 그에 맞게 널리 응답하는 거룩한 자비의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짙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기꺼이 귀 기울이시고,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이, 육신의 병고를 겪는 이, 그리고 생활의 무거운 짐으로 지친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맙시다. 그들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 씀씀이야말로 부처님 전에 올리는 참된 공양입니다.

대승원력 중생을 품다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투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승의 굳은 원력이 온 세상에 널리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대승불교의 위대한 보살 정신은 나 혼자만의 해방과 안락에 머무는 소승적 한계를 벗어나, 뭇 생명과 더불어 깨달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의 거친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튼튼한 자비와 지혜의 반야용선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불자의 길은 나의 얄팍한 평안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거룩한 보살행입니다.

자비 등불 밝히는 세상 되길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만허 스님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명이 존귀하며 서로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과 대립, 욕심과 분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모든 불자와 국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수행으로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 가기를 발원합니다.

일심으로 지혜등불 달자

대한불교금강종

종정대행 법산 스님



爲欲令衆生 除疑捨耶執
起大乘正信 佛種不斷故

위의 뜻은,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어 대승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불종자(佛種)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까닭이다.

친애하는 불자여러분,우리는 한마음(一心)으로 분별망상심을 갖지 말고 오로지 청정한 계행으로 수행정진할 때에 대각도 성불도 이룰 것입니다. 마음에서 부처님도 중생도 다 나왔습니다. 금년 부처님 오신 날은 지혜의 등불을 모두 달아서 복덕을 만인에게 베풀고 행복을 추구합시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조 실 밀운부림
교구장 호산
어산어장 인묵 학장 정원

총무국장 보관
기획국장 향성
교무국장 혜교
재무국장 성우
포교국장 해도
사서국장 무일
연수국장 청효

문화원장 성일
종책실장 덕산
문화국장 혜복
사회국장 법륜
호법국장 현묵
복지국장 현각

문화특보 혜공
정무특보 혜성
전법특보 묘수

사회특보 도심
복지특보 무일/최종환



부처님 오신 날은 지혜의 등불을 모두 달아서 복덕을 만인에게 베풀고 행복을 추구합시다

천년고찰, 부처님 법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부평리) /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사무실 : 031-527-1951~2 / 팩스 : 031-527-8568 / 종무실 : 031-527-1956

봉선사 산하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 연꽃유치원 / 사회복지법인 봉선복지재단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 남양주 시 일시청소년 쉼터 / 남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리 실버인력뱅크 / 구리 인창경로 식당/구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 구리시주간보호센터 좋은누리터 / 구리시주간보호센터 밝은누리터 / 구리시공동생활가정 아람터·한누리터/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한 일터 /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해냄일터 / 구리시재활치료센터 아이누리발달지원센터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